

#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조의 활용 가능역 연구\*

류 수 열\*\*

## ■ 목 차 ■

1. 한국어교육에서 시조를 말하는 까닭
2. 시조의 문화적 위상과 한국어교육적 딜레마
3. 시조 형식의 교육적 가능역
4. 시조 내용의 교육적 가능역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시조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역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조가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세 가지 교육 모델인 문화 모델, 언어 모델, 개인적 성장 모델 중 어떤 모델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갈래임을 논증하였다. 시조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성과를 수용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시조의 정형시적 성격을 존중할 때, 먼저 초·중·종장이 대상-관계-의미라는 시상 전개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한국적 사고의 틀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틀로서 지니는 의미가 주목된다. 그리고 문장 단위의 한 수사적 자질인 aaba 구조에 주목하여 그것이 한국문학에서 하나의 통사적 원형을 강조하였다. 또 형식으로 인해 도치가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형식과 문장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구조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강호’나 ‘청산’ 등 시조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1차적 기의를 넘어 사대부적 세계관의 소산으로서 이상향이라는 2차적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단순히 사전식의 뜻풀이를 넘어서는 문화적 함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조가 우리의 보편적 심성을 담고 있는 장르라는 점에 주목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핵심어** | 시조, 한국어교육, 정형시, 시조 형식, 강호가도, 한국문화, 낭송

## 1. 한국어교육에서 시조를 말하는 까닭

이 연구는 시조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可能域)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조가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세 가지 교육 모델인 문화 모델, 언어 모델, 개인적 성장 모델 중 어떤 모델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갈래임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시조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성과를 수용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970년대에 영어교육의 방법론으로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의 관점에 따라 문학은 한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주변부적인 위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문학은 실제적인 언어(authentic language)가 아니기에, 언어 구사의 숙달도 향상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는 교수법에서 문학이 치지도외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으며, 외국어 능력 또한 외국의 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배제된 채 향상될 수 없다는 반성<sup>1)</sup>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은 크게 확장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고, 실제의 교수-학습에서도 문학 작품의 활용 빈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문학 갈래를 기준으로 볼 때, 고전시가가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현대시 등에 비해 비교적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겠다. 우선 고전시가는 그 존재 방식 상 고어로 표기되어 있어 모국어 학습자조차도 근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현대어로 풀어서 제시될 수도 있지만, 고전 서사 갈래와는 달리 그 기표적 자질을 훼손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고전시가는 형식적으로는 압축성이, 내용적으로는 문화적 함축성이 강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sup>2)</sup>

- 1)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가 지니는 밀접한 관계에 대해 브라운(H. Douglas Brow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며, 문화는 언어의 일부이다. 이 양자는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양자를 분리시키면 언어나 문화 중 어느 하나의 중요성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특수한 도구적인 목적으로 언어 습득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2 언어 습득은 제2 문화 습득이기도 하다.” H. Douglas Brown, 신성철 옮김, 『외국어 교수·학습의 원리』(제3판), 한신문화사, 1999, 228-229면.
- 2)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는 문학 작품의 갈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점은 조용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고전연구』 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비해 신화를 포함한 설화, 전래동화, 소설 등의 고전 서사 갈래를 자료로 삼은 한국어교육 연구는 매우 활발한 편이다. 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3;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한·중·일 창세·건국신화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권 4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7; 안미영, 『한국어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권 4호, 2008;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7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7.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기는 해도 시조는 여타의 고전시가 갈래에 비하면 한국어교육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아 왔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시조는 현재까지 전승되는 유일한 역사적 시가 갈래이면서, 현대어로 푸는 과정에서 기표적 자질을 다소 포기할지언정 어석의 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적 짧은 단형의 정형시라는 점에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 자체로 수많은 어석의 난관을 안고 있는 향가, 대부분 상상력과 문맥에 의존해서 의미가 추정될 수밖에 없는 구절이 포함된 고려속요, 지극히 유연한 형식으로 인해 분량이 많은 가사와 비교하면,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시조가 선택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의 현장과는 다르게 시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넓이나 깊이 면에서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우선 양적으로 연구 결과물이 많지 않다.<sup>3)</sup> 둘째, 주로 문학을 통한 한국문화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겠지만, 시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음운론적 능력이나 유창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탐색이 생략되거나 소략한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sup>4)</sup> 셋째,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문화의 통합적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막상 그 실행의 국면에서는 산발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상황을 설계하는 경향이다.<sup>5)</sup> 넷째, 시조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거에 기

- 
- 3) 현재 시점에서 국회도서관이나 논문 제공 서비스 사이트에서 논문 제목 기준으로 ‘한국어교육’과 ‘시조’를 동시에 검색해 보면, 두 검색어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일치하는 학술지 논문은 찾을 수 없고, (교육)대학원의 석사 논문 두어 편만 발견된다.
- 4) 대표적으로 조용호, 앞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논문은 여타 논의에 비하면 시조를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문화교육의 층위에서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은 여타의 논의와 마찬가지로이다.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권, 국어교육학회, 2004.
- 5) 시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음의 논의들이 이를 대변한다.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 『動動』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집,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8 ; 강소영, 「수필 문학을 활용

댄 설명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펼치는 경향이다. 시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갈래를 포함하여 고전문학 일반이나 한국문학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개되는 논의에서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시조가 다른 갈래와 변별되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갈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으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시조의 본질에 기대어 한국어교육에서 시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목표를 토대로 시조의 한국어교육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나아가 시조의 내용과 형식 양면에 걸쳐 그 본질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시조의 문화적 위상과 한국어교육적 딜레마

문학이 외국어 교육에서 활용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모델 중의 어느 하나를 지향하게 된다.<sup>6)</sup>

첫째, 문화 모델(cultural model)이다. 문화 모델을 지향하는 관점은 문학을 한 문화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농축한 것, 곧 지혜의 축적으로 본다. 문학은 인류의 가장 의미 있는 사고와 감성들을 표현한 것이고,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초월하는 일련의 표현, 보편적인 가치와 타당성을 접할 수 있다. 문화 모형으로 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시공간의 문화와 이념을 이

---

한 한국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13호 2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6) Ronald Carter & Michael N. Long, *Teaching Literature*, Longman, 1991, 2-3면. 이하의 인용에서는 약간의 의역을 가미하였다.

해하고 감상하게 하며, 그러한 문화적 유산에 내포된 사상과 감정, 예술적 형식들의 전통을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세계의 도처에서 인간성(humanity)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 문학을 중심적인 위치에 두는 것은 특별한 ‘인간적’ 의미 때문이다.

둘째,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이다. 언어 모델을 지향하는 교사들은 ‘종종 생각은 하지만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해 학생들이 보다 섬세하고 가치 있는 창의적인 언어 사용의 실례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찾는다. 그러나 언어 중심적 문학 교육의 주된 추진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의 텍스트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형의 지지자들은 언어가 문학의 매체이며, 문학이 언어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문학적 텍스트를 고유의 언어를 통해서 읽을수록 더욱 문학답게 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개인의 성장 모델(personal growth model)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세우는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문학적 텍스트 읽기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문학 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참여를 문학에 대한 즐거움과 사랑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문학에 대한 즐거움과 사랑은 삶 전체를 통해 문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의 성장은 복합적인 문화적 산물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비롯되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촉진되고 우리 스스로 그 사회와 문화 안에서 움직일 때 촉진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족적이다. 학생들이 문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과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문화 모델은 문학을 지혜의 축적 혹은 문화의 기록으로, 언어 모델은 창의적 언어활동의 산물로, 개인의 성장 모델은 가치 있는 경험의 반

영과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물론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일종의 경향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국면에서는 서로 넘나들 수 있으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점이라 볼 수 있겠다.<sup>7)</sup>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들이 어디까지나 문학을 예술 작품으로 특권화시키는 방향과는 반대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상의 모델들은 언어 능력과 문학 능력의 신장을 별개로 보지 않고 상호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학의 본질이 언어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배치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시조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양식으로서 이러한 모델들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단 5,000수를 상회하는 방대한 작품 수에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타의 고전시가 갈래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첫째, 형식의 고태성(古態性, 故態性)이다. 조선조에 성행했던 장르인 만금시조는 그 자체로도 고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선행하던 시가 장르의 형식을 응축한 정형시이기도 하다. 10구체 향가의 3분절 형식, <정읍사> 및 <만전춘별사> 등의 고려속요, 한시 등의 여러 선행 장르로부터 물려받은 형식의 전통성이 있다. 시조에는 민요의 흔적도 강하게 남아 있는바, 이는 시가 장르의 형식적 근원이 민요에 닿아 있음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비교적 한국문학사의 후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존속하던 형식을 응축하고 있는 셈이다. 고태는

7) 이 세 가지 모델은 영국에서 영어과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관점과 공유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자국어 교육과정 모델과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 그 다섯 가지 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 성장관(personal growth), ② 범교과적 도구관(cross-curricula), ③ 성인적 실용관(adults needs), ④ 문화 유산관(cultural heritage), ⑤ 문화 분석관(cultural analysis). Brian Cox, *Cox on cox : An English Curriculum for the 1990's*, Hodders & Stoughton, 1991, 21-22면.

구태(舊態)와 다르다.

둘째, 주제와 미의식의 광포성(廣布性)이다. 주지하듯 시조에는 연정, 개세(慨世), 윤리, 강호가도(江湖歌道)와 안빈, 일상의 애환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치 있는 주제가 망라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인간관, 처세관, 자연관을 비롯하여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응축하여 보여준다 하겠다. 비장, 골계, 숭고, 우아 등의 미의식도 다양하게 드러내준다는 점도 그 연장선상에서 특기해 둘 만하다.

셋째, 향유의 공동체성이다. 시조는 태생적으로 연행문학이라는 존재론적 조건을 가진다. 시조에서 산견되는 상투적 표현이나 공식구(公式句, formulaic phrase), 주제소(主題素, theme)'는 그러한 조건의 소산이다. 이에 따라 구술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담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던 문화적 원형질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장르의 지속성이다. 사대부 문학으로서의 시조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지만, 현대적 감수성을 담으면서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문학으로 정착되었다. 현대시조가 지니는 의의나 가치는 별도로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삶의 문법이 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지는 정형시라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오래된 현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의 세 가지 모델 중 특히 문화 모델에 기댄다면 시조가 한국어교육에서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어마어마한 작품의 수와 현재까지 지속되는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시조의 존재 조건은, 문학을 지혜의 축적 혹은 문화의 기록으로 간주하는 문화 모델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외국어교육의 목적으로 내세운 5C로서 의사소통(Communication), 언어 및 문화 비교(Comparisons), 연계(Connections), 다언어적 공동체(Communities)와 함께 문화(Cultures)를 내세운 바도 있거니와,<sup>8)</sup> 외국어교육이 의사소통이라는 실용적

8) U. S. Department of Education,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1996, Allen Press. 여기에서는 <http://www.actfl.org/sites/default/files/pdfs/>

인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시조가 지닌 문화적 자질은 한국어교육의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면에서 접근하면 시조의 한국어교육적 위상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 특수성이 내재된 시조라는 한 장르를 외국어교육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특수성과 보편성이 길항하면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적 성장 모델에 기대어 본다면, 시조가 일단 우리 시대의 생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 넘기 어려운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사상과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평시조든, 적어도 중인 이상 계층에서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설시조든, 한국어 학습자가 이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을 동시에 가질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짐작되는 것이다.

한편 창의적인 언어 표현의 모범이라는 점에서 문학의 의의를 찾는 언어 모델에 기대어 볼 때도 딜레마가 발견된다. 이는 시조가 창의적인 표현보다는 다양한 전거(典據)와 공식구 등 당대의 향유층이 공유하는 관용적이거나 상투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관습시(conventional poetry)의 일종이라는 사정에서 비롯된다.<sup>9)</sup> 이 점은 앞서 밝힌 대로 향유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언어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교육에서 시조를 활용하는 데는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상의 속성이나 질서를 발견하고 현실의 진리를 해명하는 데 촉수를 움직이는 현실시(realistic Poetry)와 달리, 관습시는 현실 자체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표면적인 미를 창조하는 데 초점이 놓인다. 현실시가 구체적인

public/StandardsforFLLexecsumm\_rev.pdf(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홈페이지의 문서)를 참조함. 여기에서는 문화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학생들은 외국어 학습을 통해 그 언어를 쓰는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으며, 사실상 언어가 생성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달 없이는 언어에 대한 통달도 달성할 수 없다.”(2면)

9) 관습시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고찰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것. 김우창, 『慣習詩論—그 구조와 배경』, 『서울대 논문집』 10, 서울대학교, 1964.

이미지를 창조한다면, 관습사에서 이미지러는 장식적 또는 수사적 미를 창조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시조의 공식구적 표현이나 공식구적 심상은 바로 이러한 장식적 또는 수사적 미를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개인의 창의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시조는 언어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문학의 의의를 배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 시조가 한국어교육의 자료로서 지니는 의의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개인적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난점으로 나서는 문제 또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시조가 한국어 학습자에게 낯설다는 조건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 모델에서는 문학을 가치 있는 경험의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이들에게 낯설고도 새로운 경험 세계를 만나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조의 관습시적 성격 또한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조의 관습시적 특성은 개별 시조들이 장르적 차원에서 지니는 표현의 상투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이 대타적인 학습의 대상이 될 때는 결국 개별 작품 수준으로 환원되어 배치되기 때문에 그 상투성은 문제시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국어 학습자의 눈에는 자체적 완결성을 지닌 개별 작품으로 다가서는 것이지, 시조라는 장르 전체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설혹 그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창의적인 언어 표현 면에서 지니는 결함이라 할지라도 담화 공동체의 집단적 창의와 개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0)</sup> 이런 면에서도

10) 또한 앞에서 언급한 5C 중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 목적에서는 문학 독서를 통한 세기 간 커뮤니케이션을, 언어 비교(Comparisons) 목적에서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통찰력 개발을, 다언어 공동체(Communities) 목적에서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에 입각한 공동체 참여를 여러 항목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문화는 다섯 목적 중의 하나인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네 목적에 모두 연루되어

시조의 한국어교육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막연한 기대만은 아니라 하겠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그 가능성을 시조의 형식과 내용 양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 3. 시조 형식의 교육적 가능성

시조는 한국시가사에서 정형시로서는 유일한 갈래이다. 물론 한시가 있던 하지만 적어도 자국어교육이든 외국어교육이든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국면에서는 표기 문자로 인해 시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시조가 정형시라는 조건은 모국어화자에게는 물론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라는 작가의 자전적 술회를 들어보기로 한다.

내 눈이 어두워진 결과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산문과 떨어진 것이다. 나아가 자유시를 버리고 소네트 같은 고전 정형시로 돌아갔다. 실명이 나를 운문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초고를 써놓고 수정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억에 의지해야 했다. 산문보다 운문이 기억하기 쉽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유시보다 정형시가 기억하기 쉽다는 사실도 당연하다. 정형시는 말하자면 자기 증식이 된다. 사람들은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소네트를 구상할 수가 있다. 운율과 음수율은 자기 복제라는 덕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주지하듯 보르헤스는 본래 소설을 썼던 작가로서 시력을 잃은 후에는 다수의 시를 창작했다. 인용문에서 술회한 대로 그가 실명 후에 소네트와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1) 여기서는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 전기』, 솔출판사, 2005, 375면에서 재인용함.

같은 정형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운문이 산문에 비해 기억하기 쉽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형시가 자기 증식 혹은 자기 복제라는 덕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문자언어를 시각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었고 또 문자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펼쳐갈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 작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장르는 기억에 의존해서도 창작이 가능한 정형시였던 것이다.

비유컨대 정형시는 일종의 키트이다. 레고는 놀이에 임하는 이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데 반해 키트는 이와 달리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창작의 자율성은 억압되는 대신 이 매뉴얼을 따르기만 하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보장이 된다. 칸트의 비유를 동원하자면, 비둘기의 비상을 어렵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기압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sup>12)</sup>

문제는 이러한 미덕이 시조의 수용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누리는 데 있다. 말하자면 시조가 정형시로서 지니는 미덕이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시조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고스란히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창작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의 다양한 특질을 활용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특질들을 역으로 적용하면 시조의 정형시적 요건을 시조 창작자가 아닌 시조 수용자,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유효한 미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그 구체적인 몇 국면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시조의 정형시적 자질이 분명히 드러나는 한 지점은 초·중·종장으로 구별되는 시행의 단위이다. 주목할 것은 초·중·종장이 단순히 행의 구별이라는 형식적 기능을 넘어 대상(Object)－관계(Relation)－의미(Meaning)라는 시상의 전개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초장에서 어떤 대상을 제시하

12) Arnold Hauser, 한석중 역, 『예술과 사회』, 홍성사, 1981, 35면.

면, 이를 이어받은 중장에 가서 그 대상이 어떤 맥락에 위치해 있는가를 감지하게 되며, 종장에 가면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sup>13)</sup> <도산십이곡> 중의 한 수를 보기로 하자.

雷震(벼징)이 破山(파산) 訶야도 聾耆(농자)는 못 듣느니,  
 白田(백일)이 中天(중천) 訶야도 瞽者(고자)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이목총명) 男子(남자)로 聾聵(농고) 곤디 마로리.<sup>14)</sup>

초장의 화제는 농자(聾耆), 곧 귀머거리이다.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진술은 동어반복에 가깝다. 그런 만큼 이는 부인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장에 눈길을 주기 전에는 이 구절을 시적 진술로 보기도 어렵고, 그 함축이 무엇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 그것이 귀머거리의 운명이라는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귀머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건조한 진술에 불과한 사실 명제이다. 이 진술에 담긴 함축이 생성되는 것은 중장과와의 관계 때문이다. 중장에는 이와 대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진술이 나온다. 만일 초장과 중장을 가린 채로 읽는다면, 이 진술 또한 건조한 사실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진술이 서로 연합하면서 농자와 고자의 ‘무능 혹은 불능’이라는 의미가 진경화된다. 유사한 두 존재가 나란히 병렬됨으로써 그 둘의 공통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드디어 종장에 이르면 그 무능 혹은 불능의 존재가 ‘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는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귀머거리도 소경도 아닌 한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적 각성이다.

시조의 3장이 각각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 구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에 기댄다. 김대행, 『시조 형식의 문학교육론적 분석』, 『문학교육 틈짜기』, 역락, 2006.

14) 편의상 문헌에 수록된 표기를 따른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는 당연히 현대어로 풀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운율이나 이미지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도가 그러하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형식 이전에 사고의 순서나 사고의 체계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형식은 오히려 그러한 사고가 양식화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이 사고의 틀이라면, 이는 곧 문화의 틀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시조의 정형시적 요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문장 단위의 수사적 자질이다. 시조의 3장 형식은 종종 6구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을 지탱하는 것은 단순히 음절의 개수가 아니다. 시조에서 음절의 개수는 종장의 첫 마디와 둘째 마디를 제외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유연하다. 그렇다면 그 형식을 지탱해 주는 자질로서 우선 대구 혹은 병렬의 통사 구조와 aaba형 통사 구조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사 구조가 시조의 통사적인 긴밀성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구 혹은 병렬의 통사 구조<sup>15)</sup>는 앞에서 제시된 <雷霆이 破山호야도~>에서도 확인되므로 여기에서는 aaba형 문장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우선 이러한 구조를 갖춘 김상용(金尙容)의 작품 하나를 예로 든다.

스랑이 거죽말이 님 날 스랑 거죽말이  
 꿈에 와 뵈단 말이 괴 더욱 거죽말이  
 날 꺾치 즘 아니 오면 어니 꿈에 뵈이리.

임이 날 사랑한다는 말, 꿈에라도 나타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오매불망으로 잠마저 들지 못하니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적 메시지의 요지이다. 특징적인 것은 반복이라는 수사적 자질이 통상적인 문장과는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문장이라면 a에 해당되는 반복구의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를 낳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b에 해당되는

15) 시조의 병렬 형식에 대한 논의는 김수경, 「시조에 나타난 병렬법의 시학」,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참조. 여기에서 시조 작시의 보편적 원리로 작용하는 병렬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꿈에 와 보인다는 말’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강조의 효과는 aaba형 반복 구조를 지닌 문장의 수사적 특성이라 할 만하다. 이 시조에서는 이러한 반복 구조가 구 단위에서 활성화됨으로써 시조 형식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aaba형 구조가 우리 시가의 거의 모든 장르에 두루 나타나는 조사(措辭)로서 통사 구조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원이 민요에 있는 만큼 민요 사설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견되며, <청산별곡>이나 <가시리>와 같은 고려 속요, 판소리 사설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통사적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절은 반복을 통한 강조라는 수사적 효과를 넘어, 한국어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자질로서 제시될 만하다.

한편 시조라는 정형시가 성립되고 오랫동안 문학적 성취를 일구어 내면서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었던 조건 중의 하나는 우리말의 자유로운 어순이라 생각한다. 어순이 자유로운 대신에 문장 성분을 감지하게 하는 지표로서 (격)조사가 있다. 한국어는 이런 이유로 교착어 혹은 첨가어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착어로서의 특성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한 사례가 다음 작품이다.

가마귀 검다 호고 白鷺(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냐  
 것 회고 속 검을손 너 썬인가 호노라.

여말과 선초에 걸쳐 생존하면서 조선조 건국 후에 대제학, 우의정, 영의정 등을 두루 역임한 이직(李穡)이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다. 정몽주 모친의 시조로 알려진 작품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어 후대인의 의작(擬作)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개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대부로서 자기변명을 노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것은 초장이다. 초장은 다음과 같은 규범적인 문장으로 재구될 수 있다. “백로야. 까마귀가 검다 하고 (비)웃지 마라.” 메시지는 명료하다. 그러나 낭송이나 음영을 고려하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백로야. / 까마귀가 // 검다 하고 / 웃지 마라.”는 식으로 휴지(休止)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까마귀’라는 주어와 ‘검다’라는 서술어가 분리되고, ‘백로’라는 주어와 ‘웃다’라는 서술어가 이격된다. 이렇게 되면 시적 서술어라기보다는 산문적 진술에 가깝다. 통사론적 규범성과 의미론적 응집성 사이의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어색한 모순을 없애는 방법이 도치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의미론적 응집성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통사론적 규범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백로야’의 ‘야’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사로서 문장 전체의 통사적 완성도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

이러한 특성은 시조가 지닌 정형시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의 소산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단순히 문장의 변화를 위한 수사를 넘어 낭송 혹은 가창의 질서를 추구한 시적 연마의 결과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16)</sup>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한국어를 소리 내어 읽는 낭독 교육의 국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시조는 한국어의 통사론적 특성과 자연스럽게 결합되면서 그 형식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조 텍스트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에 임하게 된다면, 창작의 매뉴얼로가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의 사고 기제를 보여주는 틀이나 반복을 통해 강조의 효과를 낳는 수사적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로도 활용할 수 있고, 통사 구조와 길항하는 가운데 낭송 혹은 낭독의 질서를 학습하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질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적 교육이라는 지평에서 더욱 요긴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류수열, 『고전시가 독서의 재미 요소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2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5-16면 참조.

#### 4. 시조 내용의 교육적 가능성

서두에서 밝힌 대로 시조는 향유의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 공동체성은 다시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공식구나 주제소로 대표되는 구비문학적 요소를 근거로 한 당대적 공동체성과 그 내용적·주제적 자장이 오늘날의 담화 공동체로 연속된다는 의미의 통시적 공동체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시조 내용의 교육적 가능성을 각각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당대적 공동체성에 주목하면 대부분의 관용어가 그러한 것처럼 시조에 쓰인 시어를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제대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처방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시조에 쓰인 어휘들은 본래의 개념에서 벗어나 당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차적인 기의(記意, *signifié*)를 지니게 되면서 새로운 함축을 지닌 채 쓰이게 된다. 이는 바르트(R. Barthes)가 말한 신화에 해당되며, 이 개념에 따르면 주제소의 대부분은 문화적으로 신화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주제소에 해당되는 여러 시어들은 문화적 재개념화를 통해서 그 맥락적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강호가도에 쓰이는 ‘강호(江湖)’나 ‘청산(靑山)’ 등의 주제소이다. ‘강호(江湖)’의 기본적인 의미는 강과 호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에서 단순히 지형학적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만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에서는 강과 호수를 가리키는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자연을 환유적으로 표상하면서 동시에 사대부적 이념과 생활의 테두리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환기한다. 현실 정치 공간의 대립항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의 섭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자연이기도 하다. ‘청산(靑山)’ 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조하게 메마른 거

17) Roland Barthes,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오늘날의 신화』, 동문선, 1997, 267~275면.

울의 풍경마저도 청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이라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에 담긴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는 사실과 어긋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읽는 것이 옳다. 이상향이라는 의미론적 자장으로까지 확장되는 의미작용(significance)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어들은 단순한 번역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함축을 지니게 된다. 바르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상향은 신화화된 2차적 기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조를 영역한 한 사례를 보기로 하자.

speechless is the green mountain shapeless is the running river, priceless is the fresh wind ownerless is the bright moon disease-less and mind-less in all these do I hope to grow old. <sup>18)</sup>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

성혼(成渾)의 영역된 시조에서 ‘청산’은 뜻 그대로 ‘green mountain’으로 번역되었다. 문학작품의 번역에서 이차적으로 파생된 의미까지를 온전히 옮기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더 이상의 대안적 번역이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국면에서는 여기에 교수-학습 차원의 처방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그 처방은 ‘청산’이 작품에 따라 이상향 혹은 도피처라는 이차적 기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핵심이 있다. 이 사실이 생략된 시조 교육은 기표의 단순 번역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밖에도 시조에서 기러기는 곧 소식이라는 의미와 연합되어 있다. 두견 혹은 접동새는 피 맺힌 정한을, 백구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개

18) 박진임,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 한국번역학회, 2007, 163면. 이 논문에서는 주로 율격의 문제를 다루는 예로 활용되었다. 6구로 행이 구별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짓는 소리는 인적(人跡)을, 국화와 소나무는 절개를 각각 표상한다. 이 모든 것이 시조가 당대의 공동체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표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기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러한 표상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단순한 단어 번역식의 소통으로는 한국 문화의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내용적·주제적 자장이 오늘날의 담화 공동체로 연속된다는 의미의 통시적 공동체성에 기대어 보더라도 자연물에 인간의 심성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은 주요한 착목 지점이 아닐 수 없다. 현대 한국인의 심성의 근원을 유교에서 찾는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sup>19)</sup>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타당하다면 사대부에 의해 향유된 시조는 현대의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중에서도 자연물에 절개나 지조 등의 인간적 미덕을 투사하여 예찬한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도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적 세계관의 소산이긴 하지만,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보편적 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른바 강호가도로 일컬어지는 작품들도 실상은 인간성을 기초로 하는 충의사상의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강호가도가 인생시일지언정 자연시는 못 된다는 단언<sup>20)</sup>도, 결국은 이러한 한국인 심성의 한 원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5C 중의 하나인 비교(comparisons) 차원에서 접근할 때 더욱 흥미롭다. 심리학자 융(C. G. Jung)은 동서양의 미의식의 주된 차이를 추상충동 대 감정이입으로 파악하였는데, 서양인의 미의식의 주된 경향은 인간 심리의 밝고 어두운 역동적 드라마를 자연에 투사하

19) 조근호, 『유학심리학』, 나남, 1998 ; 한덕웅,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나무, 2007 중 5장 및 6장 참조. 특히 정수복의 논의에서는 정철의 <훈민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의 ‘문화적 문법’에 접근하고 있다.

20) 정병욱, 『國文學散藁』, 신구문화사, 1970, 74-75면 ; 정병욱, 『(증보)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8, 417-418면.

여 객관화하는 외향성이고, 동양인의 미의식의 주된 경향은 생명으로 가득 찬 자연의 세력을 추상하여 주관화하는 내향성이라고 했다.<sup>21)</sup> 우리의 강호가도에서 자연물에 인간적 미덕을 투사한 것도 위와 같은 경향에 그대로 부합하는 한 양상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시조를 중심으로 한 강호가도에서 다양한 주제소들이 인간의 삶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덕목을 표상한다는 사실도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수-학습 국면에서는 충분히 흥미로운 비교문화학적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동양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자국 언어문화와의 동질성을 고리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여전히 유효한 교수-학습 목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시조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역을 설정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시조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성과를 수용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여전히 교수-학습 국면에서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원래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조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적별, 수준별, 목적별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표준화된 교수-학습 방안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조건을 필연적으로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21) 용의 설명은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25면에서 인용함.

다만 한국어교육에서 율문인 시조의 정형시적 자질이 특장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면이 소리 내어 읽는 낭송이라 보고,<sup>22)</sup>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시가(詩歌)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고전 율문들은 모두 가창 혹은 연창되었던 장르들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시(詩)와 가(歌)가 분리되면서 시는 더 이상 가창되지 않았다. 낭송되었다 하더라도 음영(吟詠)의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개별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강세나 성조가 부재한 우리말의 특성으로 인해 그 개별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정형성이라는 시조의 대표적 양식적 특성을 구축하는 요소로서, 유사한 음절수의 반복적 배열로 인해 시조의 낭독은 자연스럽게 율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에서 낭독의 개별성을 넘어서서 양식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는 표준적 낭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절이나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이다. 일반적인 낭독이라면 보통 어절 단위로 끊어 읽게 마련이다. 그런데 시조에서는 어절 단위와 의미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낭독이 단순히 문자를 음성으로 옮기는 일이 아니라 의미의 음성화라면,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3음절과 5음절에 해당되는 종장의 첫 마디는 그 의미 관계에 따라 휴지가 큰 편차를 보일 것이다. ‘두어라’, ‘아희야’ 등의 종장 투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편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리와 의미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리와 의미가 조화는 창작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22) 읽기 유창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신속성과 정확성에 더하여 최근에는 운율성(prosody)도 주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는 적절히 억양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능력으로서, 글자들을 유의미한 단위로 묶는 데 필요한 통사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감정과 음량, 구절법, 부드러움, 속도 등이 그 요소에 포함된다. J. Zutell & T. V. Rasinski, *Training Teachers to Attend to their Students's Oral Reading Fluency*, *Theory into Practice*, 30, 211-217.

다. 정몽주와 이방원이 서로 주고받았다는 <단심가>와 <하여가>는 이를 증거해 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가 녹아 있는 <단심가>에는 폐쇄음이 자주 나타나며, 유연한 삶의 태도가 두드러진 <하여가>에는 ‘ㄴ’, ‘ㄹ’, ‘ㅇ’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미와 음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있는 것이 낭독의 큰 원칙이 될 것이다.

또한 반언어적(半言語的) 요소를 활용하여 시적 조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강세, 성량, 어조 등의 반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읽는다는 것은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녀와 같은 시적 화자의 자질도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시선이나 태도도 낭독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낭독이 시조의 정형시다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율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사론적, 의미론적 차원에서 낭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조는 3음절 혹은 4음절이 반복되는 통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통 2~3음절의 체언과 1음절의 조사가 결합되거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면서 3~4음절이 구성된다. 이러한 통사적 특성으로 인해 시조를 읽는 일은 자연스럽게 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율격을 위해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사론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 시조에서는 3~4음절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음절과 부족음절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론적 차원의 장단 조정이 필요하다.

더욱 욕심을 부리지면 율독의 효과에 기반하여 암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보르헤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억이 쉽다는 것은 정형시의 미덕이다. 율독의 효과는 기억의 경제성과 지속성에 있다. 이를 달리 말한 것이 바로 암송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가 암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형시라는 조건에 기대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 참고문헌

- 강소영, 「수필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13호 2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323~354면.
- 김대행, 「시조 형식의 문학교육론적 분석」, 『문학교육 뜰짜기』, 역락, 2006.
-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 김수경, 「시조에 나타난 병렬법의 시학」,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145~180면.
- 김우창, 「慣習詩論—그 구조와 배경」, 『서울대 논문집』 10, 서울대학교, 1964, 77-106면.
-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 전기』, 솔출판사, 2005.
- 류수열, 「고전시가 독서의 재미 요소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2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5~30면.
- 박진임,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 한국번역학회, 2007, 151~173면.
- 안미영, 「한국어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권 4호, 2008, 107~130면.
-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3, 279~303면.
-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한·중·일 창세·건국신화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권 4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7, 147~169면.
-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 『動勳』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집,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8, 237~261면.
-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57~271면.
- 정병욱, 『(증보)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8.
- 정병욱, 『國文學散叢』, 신구문화사, 1970.
-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나무, 2007.
- 조공호, 『유학심리학』, 나남, 1998.
- 조용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고전

- 연구』 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5-40면.
-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7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7, 237~266면.
- 한덕웅,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권, 국어교육학회, 2004, 529~555면.
- Arnold Hauser, 한석중 역, 『예술과 사회』, 흥성사, 1981.
- Barthes, Roland,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오늘날의 신화』, 동문선, 1997.
- Brown, H. Douglas, 신성철 옮김, 『외국어 교수·학습의 원리』(제3판), 한신문화사, 1999.
- Cox, Brian, *Cox on cox : An English Curriculum for the 1990's*, Hodders & Stoughton, 1991.
- Carter R. & Michael N. Long, *Teaching Literature*, Longman, 1991.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1996, Allen Press.
- Zutell, J. & Rasinski, T. V., Training Teachers to Attend to their Students's Oral Reading Fluency, *Theory into Practice*, 30, pp. 211-217.

**Abstract**

## The Usable Register of Sijo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yu, Su-Yeol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usefulness of sijo in the aspect of forms and contents in the Korean Education. For this aim, I preferentially demonstrated the role of sijo in three model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culture model, language model and personal growth model and argued about the way how to teach integrally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with.

By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sijo as a fixed verse, I firstly attended the fact that three paragraph is the correspondence of object-relation-meaning(ORM). It seems that object-relation-meaning is the frame of thinking and culture. It is important that the fact that the aaba organization of sijo diction accord with form of sijo when Korean teacher use sijo at Korean classroom. And I suggested the way how to use the relation of forms and sentence structure.

When Korean education is designed by concentrating the contents of sijo, it is necessarily considered that the meaning of poetic words of sijo tend to be used with second meaning through the significance in the discourse community. Furthermore, sijo can be approached on the view of culture comparison because it has universal mind or emotion of Korean.

⊕ **Key Words** : sijo, Korean language education, fixed verse, forms of sijo, literature of nature-friendly mood, Korean culture, recitation

· 투고일 : 2014. 10. 31. 심사 완료일 : 2014. 12. 1. 게재 확정일 : 2014. 12. 5.